

## 교과서 안의 젠더: 페미니즘 관점에 따른 고등학교 사회·문화 교과서의 젠더 개념 분석

조대훈\*

###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고등학교 사회과 선택과목인 「사회·문화」 교과서에 서술된 젠더 평등의 개념을 페미니즘의 이론적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자는 젠더 평등의 개념과 이론적 관점의 검토를 거쳐, 교과서 내용 분석을 위한 질적 내용 분석틀을 개발하였고, 이를 교과서 단위 분석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문화」 교과서에서 나타난 젠더 개념은 급진적 페미니즘의 요소가 부분적으로 가미된 자유주의 페미니즘의 관점을 취하고 있었다. 둘째, 양성평등주의의 암묵적 원칙이 적용되면서 특정한 젠더 정체성과 경험에 대한 이야기가 배제되는 경향을 보였고, 이로 인해 젠더 삭제(gender erasure)에 의한 젠더 개념의 왜곡이 발생하였다. 셋째, 「사회·문화」 교과서의 젠더 평등 개념은 국가주의의 이데올로기의 암묵적인 영향을 받고 있었으며, 그로 인해 젠더 이슈의 경계성과 확장성에 대한 학습이 제한되고 젠더 이슈에 내포된 세계시민교육적 함의가 간과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본 연구는 주요 연구 결과를 통해 2022 개정 교육과정에 기반한 교과서 연구, 학교 안 젠더 교육 연구, 학교 교육과정 정책 연구 등의 분야에 가지는 교육적 함의를 제공하였다.

주제어 : 젠더 평등, 젠더 불평등, 페미니즘, 사회적 소수자, 사회과 교과서

\* 성신여자대학교, 제1저자, [tcjjang@sungshin.ac.kr](mailto:tcjjang@sungshin.ac.kr)

##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22년 11월 9일,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행정예고본의 언론 보도 자료를 통해 교육부는 (교과 연구개발진의 동의 없이) 교육과정 시안의 성취기준에 제시되었던 ‘성 평등’을 ‘양성 평등’으로, ‘성 소수자’를 ‘성별’로 수정 결정을 발표하였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같은 보수주의적이고 반동적인 교육부의 결정은 극우적인 여성혐오 사건의 증가 현상과 이로 인해 촉발된 페미니즘의 새로운 전성기의 도래,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젠더 평등을 핵심 주제로 삼는 세계시민교육 패러다임의 영향력이 고조되는 상황 속에 이루어졌다.

‘페미니즘 리부트(reboot)’라는 표현은 2015년을 전후하여 한국 사회에서 페미니즘의 새로운 부흥기를 설명하기 위해 영화 용어를 차용해 고안된 신조어이며, 손희정(2017)의 동명 저서를 통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sup>1)</sup> 손희정에 따르면, 이 페미니즘 신조어는 적어도 두 가지 상반된 의미를 내포한다. 그 하나는 2015년 이후 여성혐오와 밀접히 연계된 굵직한 사건들이 상징하는 것처럼 페미니즘이 한국 여성의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할 조건이 되었다는 의미이고, 또 다른 하나는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 세대를 중심으로 페미니즘이 대중문화 및 소셜미디어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되었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페미니즘 리부트 현상과 더불어, 유네스코를 주축으로 한 국제사회에서는 시민교육 차원에서 젠더 평등(gender equality)을 다시

1) 리부트(reboot)란 “기존 시리즈의 연속성을 버리고 몇몇 기본적인 설정들을 유지하면서 작품 세계를 완전히 새롭게 구성하는 것”(손희정, 2017: 47)으로 정의된다.

금 강조하고 있다. 젠더 평등은 2012년 유네스코의 글로벌교육우선 구상(Global Education First Initiative) 선언 이후 시민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부상한 세계시민교육의 핵심 주제 중 하나이다. 또한, ‘1974 국제이해교육 권고’로 흔히 불리는 「국제이해, 협력, 평화를 위한 교육과 인권, 기본 자유에 관한 교육 권고」의 개정 작업이 50년만에 진행 중이며, 2022년 10월 공개된 개정 초안은 평화, 인권, 지속가능발전의 가치와 더불어 젠더 평등을 위한 젠더 변혁적 접근(gender-transformative approach)의 적용을 핵심적인 페даго지 접근법 중 하나로 강조한다.

젠더와 관련된 이러한 최근의 상황은 학교 교육 정책, 교사교육 정책, 그리고 교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발에 중요한 함의를 제공한다. 차별적인 젠더 사회화와 여성의 기회 불평등을 개선하는 노력을 중심으로 전개된 기존 젠더 교육의 외연을 확장하고, 보다 포용적인 젠더 이해가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교육부의 수정 결정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는 일이며, 본 연구는 이러한 젠더 풍경 속에서 시의적절한 연구라 할 수 있다.

이상의 문제의식을 토대로, 본 연구는 고등학교 사회과 선택과목인 「사회·문화」 교과서에 서술된 젠더 평등의 개념을 페미니즘의 이론적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자는 젠더 평등의 개념과 이론적 관점의 검토를 거쳐, 교과서 내용 분석을 위한 질적 내용 분석틀을 개발하였고, 이를 교과서 단원 분석에 활용하였다. 그리고 연구의 주요 결과를 토대로, 향후 2022 개정 교육과정에 기반한 교과서 연구, 학교 안 젠더 교육 연구, 학교 교육과정 정책 연구 등의 분야에 가지는 함의를 분석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젠더 평등 개념의 역사와 이론적 관점

젠더 평등(gender equality)의 개념은 20세기에 들어 그 입지를 공고히 하였다.<sup>2)</sup> 젠더 이론에 관한 선행연구는 20세기 전반기부터 지속된 페미니즘 운동이 젠더 이론의 발달사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한 점을 인정하고 있다. 페미니즘 이론을 역사적으로 고찰한 선행연구들은 페미니즘의 관점을 몇 가지 다른 방식으로 분류한 바 있다. 먼저 역사적 순서에 따라 페미니즘을 제1 페미니즘 물결에서 제4차 페미니즘 물결 등과 같이 분류하는 방식이 그 하나이고, 또 다른 하나는 젠더 불평등의 이론적 관점 차이에 기반하여 페미니즘을 자유주의 페미니즘, 사회주의 페미니즘, 급진적 페미니즘, 흑인 페미니즘, 포스트모던 페미니즘 등으로 구분하는 방식이다(라일, 2014; 유현옥, 2004; Giddens & Sutton, 2018). 이하에서는 역사적 시기 구분에 따른 제1차~제4차 페미니즘 물결의 특징을 간략히 소개하고, 이와 중첩적으로 나타나는 자유주의적 페미니즘, 급진적 페미니즘, 포스트모던 페미니즘의 세 가지 이론적 관점의 특징을 비교하고자 한다.

2) 본 연구에서는 gender equality를 ‘성평등’이 아닌 ‘젠더 평등’으로 번역할 것임을 밝힌다. 이러한 용어 선택은 젠더의 번역어인 ‘성(性)’이 원어가 가지고 있는 뉘앙스와 깊이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는 한계를 인정한 결과이다. 사회과학 영역에서도 젠더 및 젠더 연구라는 용어는 일반적인 학문 용어로 자리잡았다. 우리나라 교육계에서 ‘성평등’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교육과정 용어인 것은 틀림없지만, 본 연구의 목적에 비추어 성평등보다는 젠더 평등이 더 바람직한 선택이라고 연구자는 판단했다. 또한, 젠더 평등과 페미니즘은 상당한 공통분모를 지니지만, 본 연구에서는 젠더를 페미니즘을 포괄하는 상위의 개념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 1) 역사적 시기 구분에 따른 제1차~제4차 페미니즘 물결

페미니즘을 연대기적으로 구분할 때 제1차 페미니즘의 물결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전반기에 두드러졌으며, 유럽과 미국 등 서구에 국한된 참정권 운동을 중심으로 한 여성 인권 운동이라는 특징을 지닌다(라일, 2014; 유현옥, 2004). 제2차 페미니즘의 물결은 두 차례 세계 대전의 상처가 아물면서 경제적 성장과 정치적 변혁을 이루기 시작한 1960년대에서 1980년대 기간에 등장하였다. 이 시기 페미니즘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은 사회적·제도적 영역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영역, 즉 여성에게 불리한 노동 환경 및 임금 개선, 성적 자기결정권의 인정, 가정폭력의 이슈 등의 사적인 영역을 투쟁의 대상으로, 젠더 정치학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이다(라일, 2014; 유현옥, 2004). 그러나, 이 시기의 페미니즘 운동의 헤게모니는 백인 중산층 여성 그리고 이성애자 여성 집단에 있었으며, 다양한 페미니즘 정체성에 대한 존중이 미약하다는 한계를 지녔다.

제3차 페미니즘의 물결은 1990년대 이후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흐름이며, 인종, 계급, 문화적 다양성, 섹슈얼리티 등, 여성 인권에 대한 가장 포괄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 시기의 페미니즘 운동은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 탈식민주의(Post-colonialism) 이론, 그리고 퀴어(Queer) 이론의 지대한 영향을 받았으며, 제2차 페미니즘 운동의 한계였던 백인 중산층 이성애자 여성 중심의 담론에서 벗어나, 다양한 인종, 종교, 성적체성, 국적 등의 배경에 따라 발생하는 여성 안의 다양성 그리고 중층적 정체성에 주목하였다(라일, 2014; 유현옥, 2004).

마지막으로, 제4차 페미니즘 물결은 비교적 최근에 등장하였고

현재 진행 중인 흐름이라 볼 수 있으며, 디지털 매체와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결합하여 만들어낸 가상 공간 네트워크에서 펼쳐지는 개인주의적이면서도 집단주의적인 페미니즘 실천 운동을 지칭한다 (Chamberlain, 2017; Cochrane, 2013), 제4차 페미니즘의 물결은 국내에서 온라인 페미니즘(김은주, 2019), 또는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의 자생적 페미니즘(김보명, 2018: 103)”으로 주목받고 있다. 2011년 캐나다에서 성폭행 책임을 피해여성에게 전가한 경찰관의 발언에 항의하며 촉발된 ‘슬럿 워크(Slut Walk)’ 운동, 전 세계 여성 성폭력 피해에 함께 맞서자는 ‘Me Too’운동, 2016년 강남역 화장실 살인사건 등을 중심으로 전개된 한국의 페미니즘 리부트 현상은 소셜미디어 해시태그(#) 운동을 통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실천 연대를 모색하는 제4차 페미니즘 물결의 대표적 사례에 해당한다.

## 2) 젠더 불평등의 이론적 관점에 따른 분류<sup>3)</sup>

페미니즘의 관점은 젠더 불평등의 이론적 관점에 따라 다시 자유주의 페미니즘, 급진적 페미니즘, 사회주의 페미니즘, 포스트모던 페미니즘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유현옥, 2004; 라일, 2014; Giddens & Sutton, 2018). 본 연구에서는 이 중 자유주의 페미니즘, 급진적 페미

---

3) 젠더 불평등에 관한 자유주의 페미니즘, 급진주의 페미니즘 및 포스트모던 페미니즘의 세 가지 이론적 관점이 완전하게 상호 배타적인 관점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점차 발전-확대해 나가는 관점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제기의 타당성을 인정하면서도, 연구자는 교과서 내용 분석이라는 연구 목적을 고려하여, 각 이론적 관점을 배타적 이념형으로 이해하고자 하였고, 이에 기초하여 젠더에 관한 교과서 내용이 어느 이념형에 가장 근접한지를 판별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음을 밝힌다.

니즘, 포스트모던 페미니즘의 세 가지 관점을 구체적으로 조명하고자 하며, 이 세 가지 관점의 특징을 비교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 페미니즘의 이론적 관점 비교

관점명	등장 시기	주요 특징
자유주의 페미니즘	제1차~제2차 페미니즘 운동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남녀 간 기회의 평등을 강조하며, 여성 평등권 실현을 위한 법 개정 강조</li> <li>성불평등을 야기하는 근원적, 구조적 체제에 대한 관심의 결여</li> <li>이성애적 규범성의 한계를 지남</li> </ul>
급진적 페미니즘	제2차~제3차 페미니즘 운동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남성과 여성의 근본적 차이를 전제하고, 남성과 다른 여성 고유의 관점을 강조함</li> <li>사회구조적 불평등과 여성 억압에 주목하고, 남성지배적 가부장제에 기반한 사회 질서에 도전함</li> <li>사적 영역을 젠더 정치학의 대상에 포함 (The personal is political)</li> <li>이성애적 규범성의 한계를 지남</li> </ul>
포스트모던 페미니즘	제3차 페미니즘 운동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포스트모더니즘, 퀴어 이론, 탈식민주의 이론, 비판적 인종 이론 등의 영향을 받음</li> <li>이분법적 젠더 개념의 해체와 재구성</li> <li>본질주의적 입장을 거부하고, 여성 정체성의 다양성과 중층성에 주목함</li> </ul>

자유주의 페미니즘(liberal feminism)은 여성에 대한 유리천장(glass ceiling) 사례와 같이 우리 사회 제도 안에 남녀 차별이 존재함을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기본적으로 인간은 동일하며 모든 인간은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평등권의 관점에서 관련 법 제도의 개정을 통해 동등한 여성의 권리 보장을 쟁취하고자 한다. 제1차 및

제2차 페미니즘 운동기에 두드러졌던 노력들은 자유주의 페미니즘을 반영하고 있다.

한편, 제2차 페미니즘의 물결 속에 대두된 급진적 페미니즘(radical feminism)은 남녀 간의 차별과 불평등을 없애야 한다는 점에서는 자유주의 페미니즘과 유사하지만, ‘남성과 여성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라는 대전제를 취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급진적 페미니스트들은 젠더 또는 성역할이 사회의 권력 및 자원의 배분 방식으로 작용하였고, 그 한 가운데는 오랜 ‘가부장제’가 자리한다고 보았다. 가부장제는 남성이 여성을 체계적으로 지배하고 종속시키기 위한 제도에 해당하며, 결국 젠더 평등을 위해서는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사회구조의 근본적 개혁이 필수적이라 주장한다. 또한, 급진적 페미니즘은 “개인적인 것이 사회적이다(The personal is political)”라는 구호처럼(라일, 2015: 63), 여성 개인의 사적 영역에 속하는 가정폭력, 피임과 낙태, 직장 업무 환경 등을 젠더 정치의 담론으로 끌어들었다.

그러나, 자유주의 페미니즘과 급진적 페미니즘이 가지는 공통적 한계는 젠더의 개념이 남성과 여성의 이분법적 관점, 즉 이성애적 규범성(hetero-normativity)에 근거한 페미니즘이라는 점이며, 다양한 배경 변인에 따라 다양하게 그리고 중층적으로 나타나는 젠더 정체성의 중요성에 주목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포스트모더니즘 페미니즘(Post-modern feminism)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등장하였다. 포스트모더니즘, 흑인 페미니즘, 탈식민주의 이론, 퀴어 이론 등의 복합적 영향을 받은 포스트모던 페미니즘은 고정화된 젠더의 개념을 거부하고, 여성들이 여성으로서의 단일한 정체성과 경험을 강조하는 본질주의적 입장을 해체하면서, 다양하고 이질적인 여성의 정체성과

경험이 개인과 집단의 형태로 존재함을 강조한다.

## 2. 사회과 교과서 젠더 개념 분석 선행 연구

이제 눈을 교과교육의 영역으로 돌려보도록 하자. 젠더 개념은 특히 시민교육의 중핵 교과로서의 위치를 강조하는 사회 교과 내에서 꾸준히 연구되어 온 주제 중 하나이다. 사회과교육 또는 학교 시민교육의 영역에서 젠더 연구는 교육과정 및 교과서 분석 연구, 예비교사 또는 현직교사 대상 연구, 초·중·고등학교 학생 대상 연구, 교실수업 연구 등의 다양한 형태로 실시되었다. 관련 젠더 연구는 크게 성역할 개념에 관한 교육과정 및 교과서 분석 연구, 성차별적 태도/관점의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 사회적 소수자 차별 및 인권 문제에 초점을 둔 연구, 성인지 감수성 또는 성 평등 교육 프로그램이 학습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그리고 성 소수자 인권 문제 또는 성 소수자에 대한 인식 연구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사회과 교과서에서 기술하는 남녀 성역할이 가부장적 시스템의 젠더사회화 또는 성별 분리를 암묵적으로 반영하는 경향(예: 구정화, 2011, 김정환, 유종열, 2020), 그리고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을 형성할 가능성에 주목하였다(구정화, 2015; 박가나, 2016; 설규주, 2013). 또한, 일부 연구는 양가적(兩價的) 성차별주의(ambivalent sexism)의 관점에서, 기사도 정신으로 대변되는 ‘온정적 성차별주의’가 청소년 젠더 교육에 대해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주장하였다(예: 이미나, 2017; 최영아, 2020; 최정윤, 2006). 타 연구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무척 희소한 성 소수자 연구물은 학교 교육

과정 및 교사교육 차원에서 이성에 규범성을 대전제로 이루어지는 젠더 교육의 한계와 문제점에 공통적으로 주목하고 있다(박선운, 박윤경, 2021; 신경희, 2018; 조대훈, 2011).

그러나, 우리는 본 연구의 목적에 비추어 기존 사회 교과교육 연구의 한계를 비판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젠더 교육의 관점에서 확인되는 선행 연구문헌의 한계 중 하나는 ‘페미니즘의 이론적 관점에 기초한 교육과정 또는 교과서 분석 연구의 부재’이다. 세계시민교육 인정 교과서 3종에 제시된 성 평등의 의미에 대한 다층적인 분석을 통해 성평등 연구의 범위를 확장한 조혜승(2021)의 연구 등을 제외하면, 20세기에 걸쳐 학문적으로 축적된 젠더 이론, 페미니즘 이론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국가 교육과정 및 교과서 내용을 비판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무척 드물었다. 성 평등 또는 젠더 이슈는 여전히 한국의 교과교육에서 여전히 소외된 주제이다(나장함, 조대훈, 2017).

사회과 젠더 연구문헌이 지니는 두 번째의 한계점은 ‘양성평등교육(education for the equality of two sexes)’이라는 성차별적인 젠더교육 프레임을 수용하는 주류적 연구 경향이다. 양성 평등의 개념은 ‘gender equality’를 한국 정부 및 교육당국이 지난 수십 년간 자의적으로 해석해 온 결과이자 일종의 정책 개념이다. 남성과 여성의 고정화된 젠더 개념을 지지하는 양성평등교육의 관점에서 수행된 수많은 교육 연구는 21세기에 들어 더욱 그 경계가 불분명해지고 복잡성을 띠는 젠더의 의미를 간과하고 말았다.

본 연구는 이상에서 논의한 젠더 불평등을 바라보는 페미니즘의 이론적 관점, 그리고 젠더 개념에 관한 사회과교육 연구 분야의 한계점 분석을 토대로 연구문제 및 방법론을 설정하였다.

### Ⅲ. 교과서 분석 방법

#### 1. 분석 대상 단원의 교육과정 성취기준 및 교과서 단원 구성

교과서 분석 대상 과목 교과서 목록 및 분석 대상 단원의 내용 구성을 살펴보기에 앞서, 해당 교과서 개발의 핵심 근거가 2015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 문서(교육부 고시 제2015-74호)의 관련 성취기준을 살펴보도록 하자.

<표 2>는 분석 대상 단원의 국가 교육과정 성취기준 및 성취기준 해설을 담고 있으며, 이를 통해 관련 단원 내용을 개발한 교과서 집필자가 필수적으로 반영해야 하는 핵심주제, 개념 또는 이론적 관점이 무엇인지를 가늠할 수 있다.

<표 2> 분석 대상 단원의 교육과정 성취기준 내용 소개<sup>4)</sup>

사회 · 문화	대단원명	(4) 사회 계층과 불평등
	성취기준	[12사문04-03] 다양한 사회 불평등 양상을 조사하고 그와 관련한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성취기준 해설	[12사문04-03]을 통해 <u>사회적 소수자</u> , <u>성 불평등</u> , <u>빈곤</u> 의 양상과 그 <u>문제점 및 해결 방안</u> 을 탐색한다. 특히 사회적 소수자는 <u>인종</u> , <u>민족</u> , <u>국적</u> , <u>신체</u>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규정될 수 있다는 점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u>차별</u> 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한다.

4) 성취기준 해설 문단에 나타난 굵은 글씨 및 밑줄은 핵심주제 및 개념을 강조하기 위해 연구자가 추가한 것임을 밝힌다.

<표 3> 분석 대상 2015 개정 사회과 교과서 및 단원 구성 개요

과목명	출판사명 (가나다순)	분석 단원의 핵심 주제 및 개념	
	(총 5종)	대단원 및 중단원	IV. 사회 계층과 불평등 3. 다양한 사회 불평등 양상
사회 · 문화	- 교학사 - 미래엔 - 비상교육 - 지학사 - 천재교육	핵심 주제 및 하위 개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 소수자 개념</li> <li>• 사회적 소수자 차별 문제</li> <li>• 사회적 소수자 차별 문제의 해결방안</li> <li>• 성 불평등의 의미 및 양상</li> <li>• 성 불평등 현상의 원인</li> <li>• 성 불평등 문제 및 해결방안</li> </ul>

본 교과서 분석 연구의 분석 대상 과목 교과서 목록 및 분석 대상 단원의 내용 구성은 <표 3>과 같다. 연구자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집필된 현행 고등학교 선택과목 「사회·문화」 교과서 5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분석 대상은 젠더 관련 하위 개념(예: 성, 성 역할, 성 윤리, 성 불평등, 사회적 소수자)이 키워드로 등장하는 단원으로 선정하였다. 두 사회과 과목의 5종 교과서 모두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성취기준 및 성취기준 해설을 기반으로 집필되었기 때문에, 각 단원의 내용 구조 자체는 상당히 유사하였다. 「사회·문화」 교과서는 젠더 및 성 평등 개념을 중단원 수준의 핵심주제 및 개념으로 다루고 있다. 젠더 이슈가 부분적으로 다루어지는 또 다른 과목으로 고등학교 공통과목 「통합사회」를 들 수 있는데, 이 과목의 경우 사회적 소수자, 사회적 약자의 인권 문제나 사회불평등 현상을 다루는 단원에서(IV. 인권 보장과 헌법, VI. 사회 정의와 불평등) 하위 학습 주제 중 하나로 여성 인권 문제, 성차별 문제 등이 부분적으로 포함

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의 직접적인 분석 대상으로는 삼지 않았으며, 「사회·문화」 교과서 분석 결과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보조적인 추가 자료로 활용되었다.

## 2. 교과서 내용 분석 방법 및 분석 준거틀

본 절에서는 본 연구가 기반한 내용 분석의 방법론적 관점, 그리고 내용 분석의 분석틀과 분석의 세부 방법을 차례로 소개하고자 한다.

### 1) 내용 분석의 방법론적 관점

교과서 내용 분석의 방법론으로 연구자는 다음의 두 가지 관점을 취하였다. 첫째, 본 연구의 젠더 평등의 관점에서 사회과 교과서의 위치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려는 본 연구의 목적을 고려하여, 연구자는 기존 교과서 내용 분석 연구에서 많이 사용되어 온 질적 내용 분석(qualitative content analysis)의 방법을 활용하였다. 이러한 결정은 양적, 계량적 접근이 교육과정 문서 및 교과서상에서 드러나는 가시적인 단어에만 주목하는 한계를 지니며, 젠더 개념 연구의 특성상 비가시적인 영역, 즉 감추어지고 삭제된 영역에 해당하는 젠더 개념 분석에는 질적 분석이 더 효과적이라는 결론에 기초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감추어지고 삭제된 내용 영역에 대한 분석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연구자는 ‘대위법적 독서(counter-point 또는 contrapuntal reading)’의 관점을 활용하였다. 대위법적 독서는 ‘문화와

제국주의(Culture and Imperialism)'라는 저서로 널리 알려진 사이드(2011)(Said, 1993)가 제안한 문화에 대한 탈식민지적(Post-colonial) 이해의 관점이다.<sup>5)</sup> 사이드는 해당 저서에서 19세기~20세기 영국과 프랑스의 예술작품(예: '페스트', '인도로 가는 길,' '맨스필드파크')이 어떻게 제국주의 식민지 통치를 정당화했는지 분석하는 방법론으로 대위법적 독서를 제안하였다. 당대 유명 문학가의 해당 작품에서 강제적으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배제되거나 삭제된 배경, 즉 타자의 관점, 식민지 국가의 상황을 병치하고 연계하여 읽는 방식이다. 이 같은 대위법적 접근 방식은 탈식민지(post-colonial) 교육 연구에서 중요한 원리로 작용한다. 또한, 최근 비판적 인종 이론(critical race theory)에 기반한 다문화교육 연구, 식민지 경험을 지닌 토착문화 연구(indigenous studies)의 교육과정 분석 연구에서도 이와 유사한 방법론이 활용되고 있다. 예를 들면, 미국 각 주의 교육과정 분석에 관한 Sabzalian, Shear and Snyder(2021)의 연구, 그리고 미국 토착민 연구의 관점에서 다문화교육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Sabzalian(2019)의 연구는 '토착문화 삭제(indigenous erasure)' 현상에 주목하였다. 교과서 안의 젠더 개념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본 연구에서 이와 같은 분석적 관점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둘째, 질적 내용 분석의 세부 방법 면에서 연구자는 젠더 개념과

---

5) 에드워드 사이드(Edward W. Said)의 대위법적 독서는 19세기 제국주의 열강의 식민지 경영이 종속된 20세기 사회에 여전히 비서구인들의 문화와 정신세계에 제국주의 또는 식민주의적 사고가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폭로하고, 더 나아가 비서구 피식민 사회가 서구 제국주의 문화의 헤게모니에 맞서 저항하는 '되받아쓰기(writing back)'의 대안적이고 전복적인 글쓰기를 강조한다(고부응, 2012: 915).

연관되는 주요 어휘나 개념의 빈도에 주목하기보다는, 단원의 본문 텍스트, 학습활동, 사진 또는 삽화에서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배제 또는 삭제되고 있는 젠더 관련 가치, 관점 또는 이데올로기를 파악하고자 했다(Krippendorff, 2019). 이를 위한 1단계 작업으로 연구자는 젠더 관련 하위 키워드에 대한 1차 코딩을 실시하였고, 2단계 작업으로 교과서 하위 영역별로 개별 문장 단위 및 문단 단위에서의 2차 코딩을 거쳐, 최종적으로 소단원 및 중단원 수준에서 젠더의 의미와 관점에 관한 주제를 도출하였다. 연구자의 내용 분석 결과는 해당 분야의 교과교육 전문가 1인의 검토를 거쳤으며, 검토 결과를 최종 분석 결과에 반영하고 확정하였다.

## 2) 분석틀 및 분석 세부 항목

II장에서 논의한 젠더 평등의 이론적 관점 및 본 III장에서 밝힌 대위법적 독서(contrapuntal reading)의 원칙을 견지하면서, 본 연구는 <표 4>와 같은 분석틀을 고안하고 이를 교과서 내용 분석에 적용하였다. 아래 분석틀은 총 4가지 수준의 분석 영역으로 구성되며, 분석은 1수준에서 4수준으로 나아가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3단계 분석에서 연구자는 앞서 언급한 비판적 인종 이론(critical race theory)과 토착문화 연구(indigenous studies)에서 교육과정 분석 방법으로 활용된 ‘토착문화 삭제(indigenous erasure)’ 개념을 차용하여, ‘젠더 삭제(gender erasure)’의 여부를 분석 항목으로 포함하였다.

<표 4> 교과서 내용 분석에 활용한 분석틀

분석 영역	분석 질문 및 내용
1. 젠더 관련 용어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과서에 등장하는 젠더 관련 용어는 무엇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장 단위의 기초 코딩 실시</li> <li>젠더 관련 용어 목록화</li> </ul> </li> </ul>
2. 젠더 및 젠더 불평등의 개념 구성	젠더의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과서는 젠더의 유형을 어떻게 분류하고 있는가?</li> </ul>
	젠더 불평등의 의미, 원인 및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과서는 젠더 불평등의 의미와 원인을 어떻게 서술하고 있는가?</li> <li>교과서는 젠더 불평등의 사례로 언급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li> </ul>
3. 포함된 이야기 vs. 삭제된 이야기	젠더 불평등의 해결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과서는 젠더 불평등의 해결방안으로 무엇을 제시하고 있는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과서에 나타난/삭제된 젠더 이야기는 무엇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과서에 명시된 젠더 유형의 확인</li> <li>교과서에서 삭제된 젠더 유형 확인 (= gender erasure)</li> </ul> </li> </ul>
4. 페미니즘의 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과서에 나타난 젠더 개념은 어떠한 페미니즘의 이론적 관점을 반영하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과서 내 젠더 평등에 관한 이론적 관점 확인</li> <li>젠더교육 및 시민교육 관련 함의 분석</li> </ul> </li> </ul>

#### IV. 「사회·문화」 교과서의 젠더 평등 관점 분석 결과

사회과 교육과정 성취기준에 근거하여 개발된 고등학교 「사회·문화」 교과서는 젠더와 젠더 평등의 개념을 어떻게 구성하고 있고, 어떠한 가치와 관점을 반영하고 있을까? <표 5>는 앞서 소개한

<표 3>의 분석틀을 적용하여 5개 출판사의 「사회·문화」 교과서의 ‘IV. 사회 계층과 불평등’ 단원 내용을 분석한 결과를 요약적으로 보여준다.

<표 5> 「사회·문화」 교과서의 젠더 관련 내용 분석 결과

분석 영역	출판사	분석 결과
젠더 유형 구분	A	여성과 남성의 구분, 생물학적 성, 사회적 성
	B	여성과 남성의 구분, 생물학적 성, 사회적 성
	C	여성과 남성의 구분, 생물학적 성, 사회적 성
	D	여성과 남성의 구분, 생물학적 성, 사회적 성
	E	여성과 남성의 구분, 생물학적 성, 사회적 성, 성 소수자
젠더 및 젠더 불평등 개념의 구성	젠더 불평등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미: 성차별의 불평등한 구조 속에서 성 역할 학습을 통해 발생하는 성차를 둘러싼 차별 문제</li> <li>• 원인: 불평등한 법적·제도적 사회구조, 왜곡된 차별적 젠더 사회화</li> <li>• 사례: 여성 인권 운동의 선구자, 성별 임금격차, 직업선택의 제한, 대중매체 콘텐츠의 왜곡된 여성상, 일상생활 속의 여성 비하 언행, 남녀 간 가사노동 불평등, 대중교통의 여성전용구역 논쟁</li> </ul>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미: 생물학적-사회적 성의 차이로 인한 남녀에 대한 편견과 차별</li> <li>• 원인: 가부장제의 성별 분업, 차별적 젠더 사회화</li> <li>• 사례: 유리천장 현상, 남녀 간 가사노동 불평등, 성별 임금격차, 대중매체 콘텐츠의 성차별, 일상생활 속의 성차별적 언행, 남성 육아휴직제도, 성인지 예산 제도</li> </ul>
		C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미: 생물학적-사회적 성의 차이로 인한 남녀 간의 지위, 권력, 위신 등의 격차 현상</li> <li>• 원인: 가부장제적 사회구조에 따른 성별 분업,</li> </ul>

분석 영역	출판사	분석 결과
		차별적 젠더 사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례: 남녀 간 가사노동시간 및 자녀 양육의 불평등, 성별 임금격차, 고위공직자-지역구위원의 성비불균형, 취업기회의 성차별, 성별 영향 평가 제도</li> </ul>
	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의미: 생물학적-사회적 성의 차이에 따른 특정 성에 대한 편견과 차별</li> <li>원인: 성차별적 사회구조, 차별적 젠더 사회화</li> <li>사례: 유리천장 현상, 성별 임금격차, 취업기회의 성차별, 대중매체 콘텐츠의 성차별적 인식, 일상생활 속의 성차별적 언행</li> </ul>
	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의미: 생물학적-사회적 성별의 차이로 인한 남녀 간의 지위, 권력, 위세 등의 성차별 현상</li> <li>원인: 가부장제적 사회구조에 따른 성별 분업, 차별적 젠더 사회화</li> <li>사례: 유리천장 지수, 여성의 경력 단절, 국회의원의 성비 불균형, 대중매체 콘텐츠의 성차별적 인식, 신용카드 발급 기준의 남녀 성차별, 성소수자 차별 실태 조사 결과</li> </ul>
	A	관련 법률과 각종 제도의 개선, 양성평등의식을 강조하는 사회화와 재교육 실시
젠더 불평등 해결 방안	B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인적 측면: 사회구성원의 인식 전환, 양성평등의식</li> <li>사회적 측면: 제도적, 정책적 개선, 양성평등교육 강화</li> </ol>
	C	가부장제적 사회구조를 없애기 위한 제도 개선 및 법률 제정, 양성평등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적 노력
	D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도적 개선(관련 법률과 각종 제도의 개선, 양성평등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제공)</li> </ol>

분석 영역	출판사	분석 결과
		2) 개개인의 노력
	E	1) 사회적 차원의 노력: 성평등교육 강화, 법적·제도적 개선, 2) 개인적 차원의 노력
삭제된 젠더 이야기 (gender erasure)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의의 젠더 평등 개념, 젠더 정체성의 다양성</li> <li>• (한국 여성이 아닌) 여성에 대한 차별과 불평등</li> <li>•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인권 문제</li> <li>• 사회운동으로서의 젠더 평등(페미니즘) 운동</li> <li>• 젠더 평등(또는 페미니즘)에 대한 저항 및 반동</li> <li>• 보편적이지 않은 다양하고 중층적인 여성 정체성(예: 흑인 여성, 이슬람 여성, 제3세계 여성, 트랜스젠더 여성)</li> </ul>
	B	
	C	
	D	
	E	
페미니즘의 관점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통점1: 자유주의 페미니즘에 기반하며, 급진적 페미니즘의 요소를 부분적으로 결합함</li> <li>• 공통점2: 이성애적 페미니즘의 관점을 보임(남녀 차별, 양성평등교육의 강조)</li> </ul>
	B	
	C	
	D	
	E	

이하에서는 이 표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의 주요 발견점을 세 가지로 정리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 1. 자유주의 페미니즘과 급진적 페미니즘의 결합

<표 5>의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현행 「사회·문화」 교과서가 서술한 젠더 평등 개념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자유주의 페미니즘’에 대한 지지 성향이다. 5종 교과서 모두 예외 없이 남녀 간의 불평등한 기회 구조를 소개하며, 여성의 다양한 권리 보장

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급진적 페미니즘의 요소도 일부 확인할 수 있었다. 성 불평등의 원인 중 하나로 가부장제 체제의 성별 분업을 언급한 점은 자유주의 페미니즘이 성 불평등의 사회구조적 원인에 제대로 주목하지 못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접근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평가해 볼 때, 5종 교과서의 성 불평등 단원의 이론적 관점을 설명해주는 것은 자유주의 페미니즘이라 결론지을 수 있다. 그 주된 이유는 바로 5종 교과서 모두 가부장제의 성별 분업을 성 불평등의 원인으로 거론하였지만, 이는 피상적인 수준에 그쳤기 때문이다. 급진적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볼 때, 여성의 성적 자기 결정권과 가정폭력 등의 사적 영역을 젠더의 관점에서 다루는 내용을 일관되게 결여하고 있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5종 교과서 모두 대부분의 본문 텍스트와 학습활동 자료를 여성 인권 수준 개선을 위한 법적,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과 방안의 서술에 할애한 반면, 급진적 페미니즘이 중시하는 남성 지배적 불평등 구조와 여성 억압을 묵인하는 사회 질서에 대한 도전의 노력 부분은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였다. 다시 말해, 2015 개정 「사회·문화」 교과서의 젠더 불평등 개념은 점진적이고 공학적인 개선 방안의 소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사회변혁을 이끄는 ‘사회운동’으로서 페미니즘 운동이 가지는 의미의 서술을 간과하고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문화」 교과서에서 나타난 젠더 개념은 급진적 페미니즘의 요소가 부분적으로 가미된 자유주의 페미니즘의 관점을 취했다고 볼 수 있다.

## 2. 양성평등주의의 젠더 배제에 따른 '젠더 왜곡'

분석 방법 소개 부분에서 언급했던 '젠더 삭제(gender erasure)'의 기준에 의거할 때, 「사회·문화」 교과서 분석 단원의 두 번째 특징은 남성과 여성의 이분법적 구분을 제외함으로써 특정한 젠더 유형과 경험이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는 점이다. 교육과정 문서상에는 등장하지 않는 양성평등주의라는 암묵적인 원칙이 5종 교과서의 사회적 소수자 및 성 불평등 단원 내용을 지배하고 있었다. 양성평등정책 및 양성평등교육의 강조는 성 소수자의 이야기를 효과적으로 지워버리고,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사회적 소수자 집단 중 하나를 사회과 교과서 내에서 투명인간으로 만드는 기능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었다.<sup>6)</sup>

교과서 내 양성평등주의의 강조는 여성의 다양성에 대해서도 지우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5종 교과서에서 묘사되는 성 불평등을 경험하는 여성 집단은 남성 지배적, 가부장적 사회 체제에 의해 타자화된 사회적 소수자 집단이라는 점이 강조되었지만, 이 과정에서 여성을 고정적 정체성을 지닌 단일 집단으로 간주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었다. 우리는 보편적이지 않은, 다양하고 중층적인 여성 정체성(예: 흑인 여성, 이주 여성, 이슬람 여성, 레즈비언/트랜스젠더 여성, 디지털 네이티브 여성)을 조명하며, 이성애 중심적 또는 본질주의적 페미

---

6) 특히, 2022년 11월 9일에 있었던 교육부의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 행정예고본 언론 브리핑에서 교육부는 '성 평등'과 '성 소수자' 단어를 교육과정 시안에서 삭제하였음을 밝히면서, 교육부 및 국가 교육과정의 양성평등주의 관점 채택을 그 어느 때보다도 명확하게 공표하였다(연합뉴스 2022년 11월 9일자; 중앙일보 2022년 11월 9일자).

니즘의 한계에 주목하는 포스트모던 페미니즘 이론의 비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사례는 E교과서의 관련 단원 말미에 포함된 성 소수자 인권 실태 조사 자료를 활용한 심화학습활동(활동명: 창의융합 포트폴리오)이다. 5종 교과서 중 유일하게 E교과서는 사회적 소수자 차별 문제의 개선 방안을 탐구하는 목적으로 성 소수자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다. E교과서의 해당 학습활동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성 소수자 인권 실태 조사 보고서에 담긴 ‘직장에서 성 소수자의 정체성 숨김으로 인해 겪는 어려움’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그래프로 제시하고 있으며, 학생들은 이 자료를 읽고 성 소수자 집단이 자료에 나타난 어려움(예: 정체성 숨김으로 인한 스트레스, 업무 외 모임 불참 등)을 겪는 원인을 분석하고, 사회적 차원에서 이 같은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게 된다. 이러한 활동은 가문에 단비와도 같은 긍정적 사례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조금 더 면밀히 들여다 볼 경우, 해당 학습활동은 성 소수자 인권 문제를 본문 내에서 구체적으로 다룰 경우 예상할 수 있는 다양한 후폭풍을 고려한 소극적 학습활동에 가깝다. 해당 학습활동은 단원 본문에서는 사회적 소수자의 유형으로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성 소수자를 갑자기 등장시킨 후, ‘(성 소수자의) 정체성 숨김에 따른 어려움’의 원인을 분석하려 한다는 점에서 고립된 섬과 같은 탈맥락적인 활동이라 볼 수 있다. 또한, 해당 학습활동은 성 소수자가 경험하는 사회적 차별과 불평등의 양상이 아닌, 성 소수자 개인의 정체성 숨김에 따른 개인적 어려움에만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 다른 사회적 소수자 문제에 대한 접근방식과 크게 다르다. 성 소수자가 일상적으로 경험

하는 차별과 불평등을 성 소수자 개인의 심리적 문제로 환원하고 있는 것이다.

양성평등주의의 젠더 배제 기능으로 인해 나타나는 이 같은 문제점들은 궁극적으로 사회과 교육과정 문서상의 성 평등 또는 젠더의 개념을 왜곡하고 있으며, 결론지을 수 있다.

### 3. 단일 국가주의적 페미니즘의 배타성에 대한 우려

포스트모던 페미니즘, 그리고 제4세대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사회·문화」 교과서가 지니는 또 다른 잠재적 문제점은 젠더 평등 개념이 지니는 단일 국가주의적 성향이다. 달리 표현하자면, 「사회·문화」 교과서는 젠더 평등의 개념을 단일 국가에 기반한 국내의 문제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는 21세기 세계화와 다문화 시대에 젠더 이슈에 내포된 세계시민적 함의를 간과하는 한계를 지닌다.

예를 들면, 5종 중 3종의 교과서(B, D, E)에서 유리천장 지수, 성 불평등 지수와 같은 세계 인권 지수 자료를 활용하여 젠더 평등에 관한 국제적 관점을 반영하고 있었다. 이 자료들의 공통된 목적은 학습자가 인권 지수 국제 비교를 통해 한국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었다. 국내의 성 불평등 현황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찾는 것은 성 평등 지향을 위한 가치로운 활동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해당 학습활동이 세계화 및 다문화의 시대에 성 불평등 문제를 국내적 현상으로 단순화하고, 그로 인해 여성에 대한 혐오, 차별, 불평등 현상에 내재된 복합성을 간과할 수 있다는 점이다. 여기서 여성은 초국가적, 세계시민으로서의 여

성(예: 이주노동자 여성, 결혼이민자 여성, 성 소수자 여성, 이슬람 여성, 다른 국가의 여성)을 지칭하며, 「사회·문화」 교과서는 그러한 여성이 국내에서 경험하는 성 불평등의 현황을 의미 있는 학습 내용으로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겠다.

역사적으로 페미니즘 운동이 지니는 전 지구적, 초국가적, 세계시민주의적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이 같은 성 불평등 관련 교과서 내용 구성이 지니는 한계는 분명하다. 세계시민교육과 페미니즘의 관계를 고찰하며 페미니즘 운동의 국제적 연대에 주목한 김보명(2020)은 “여성으로서 나에게 국가는 없다”라는 버지니아 울프의 선언을 인용하면서(273-277) 국민국가에 갇힌 페미니즘에서 벗어나 지역, 국가, 초국가적 수준에서 인종, 계층, 종교, 문화, 성 정체성 등의 변인과 페미니즘이 결합할 때 나타나는 차이, 갈등, 논쟁, 공감의 가치를 중시하였다. 세계시민주의 그리고 세계시민교육적 관점에서 젠더 평등은 젠더 이슈를 지역, 국가, 세계 간의 상호연결성 속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정리하면, 「사회·문화」 교과서에서 그려진 젠더 평등은 국가주의의 이데올로기의 암묵적인 영향을 받고 있었으며, 그로 인해 젠더 이슈의 경계성과 확장성에 대한 학습이 제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V. 결론 및 시사점

「사회·문화」 교과서의 젠더 평등 관점을 분석한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문화」 교과서에서 나타난 젠더 개념은 급진적 페미니즘의 요소가 부분적으로 가미된 자유주의 페미니즘의 관점을 취하고 있었다. 5종 교과서는 성 불평등의 원인 중 하나로 가부장제 체제의 성별 분업을 언급한 점에서 급진적 페미니즘의 모습을 일부 지녔지만, 이는 피상적인 수준에 그쳤으며, 남성 지배적 불평등 구조와 여성 억압을 목인하는 사회 질서에 대한 도전의 노력을 충분히 담아 내지 못하였다. 남녀 간의 불평등한 기회 구조를 강조하며, 여성의 다양한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이 교과서 내용의 핵심을 구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유주의 페미니즘에 더 가까웠다.

둘째, 양성평등주의의 암묵적 원칙이 적용되면서 특정한 젠더 정체성과 경험에 대한 이야기가 배제되는 경향을 보였고, 젠더 배제(gender erasure)에 의한 젠더 개념의 왜곡이 발생하였다. 성 소수자는 전형적인 영 교육과정(null curriculum)의 영역에 해당하였으며, 여성은 고정적 정체성을 지닌 단일집단으로 묘사되면서 다양하고 중층적인 여성 정체성을 제대로 기술하지 못하였다.

셋째, 「사회·문화」 교과서의 젠더 평등 개념은 단일 국가주의의 이데올로기의 암묵적인 영향을 받고 있었으며, 그로 인해 젠더 이슈의 경계성과 확장성에 대한 학습이 제한되고 있었다. 젠더 이슈가 지역, 국가, 세계 간의 상호연결성 속에서 다루어지지 못하면서, 젠더 이슈에 내포된 세계시민교육적 함의가 간과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가 사회과 교육과정과 교과서 개발 과정, 그리고 젠더 시민교육에 대해 가지는 함의는 무엇일까? 가장 먼저 거론되어야 할

사항은 사회과 교과서가 보인 페미니즘의 이론적 편향성에 대한 성찰과 변화일 것이다. 결론적으로, 연구자는 본 연구에서 분석틀로 활용된 페미니즘의 세 가지 이론적 관점 중 포스트모던 페미니즘을 적극 지지하며, 페미니즘 운동에 대한 포스트모던 페미니즘의 비판적 성찰이 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발에 반영되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특히, 젠더 범주 자체를 해체하고 재구성하는 최근의 포스트모던 페미니즘의 학문적 성과는 남성과 여성이라는 이분법적 성별 정체성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다양하고 중층적인 젠더 정체성의 경험과 실천 운동을 강조한다. 특히, 소셜미디어 세대가 주축이 된 디지털 페미니즘의 실천 운동은 이제까지 없었던 그리고 현재 진행형의 새로운 젠더 평등의 실천 방식으로 떠올랐다. 이러한 이론적, 실천적 연구 성과를 시민교육 교육과정은 적극적으로 포용하고 학습의 기회로 구성할 의미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가 가지는 두 번째의 함의는 청소년들에게 오개념을 심어줄 위험이 큰 왜곡된 젠더 평등 교육에 대한 성찰의 필요성이다. ‘아직 우리 사회는 이를 받아들일 공감대가 마련되지 않았다’라는 교육부의 설명과 함께 성 평등과 성 소수자 단어를 교육과정 성취기준에서 삭제한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교육부, 2022)은 페미니즘과 젠더 교육의 관점에서 2015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보다 더 후퇴한 교육과정으로 평가될 것이다. 지난 한 세기에 걸쳐 서구 선진국을 중심으로 확산되어 온 젠더 평등의 노력과 일련의 가시적인 성과들을 한국의 학교 교육과정은 제대로 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향후 개발될 2022 개정 사회과 교과서는 자칫 성 평등을 강조하지만 페미니즘의 본질이 왜곡된 교육, 무늬만 성 평등 교육으로

전략할 위험을 지니고 있다. 이 같은 현실은 본 연구 결과가 강조하고 있는 학교 안 젠더 교육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더욱 절실하다는 점을 강력히 시사한다.

## 참고문헌

- 고부웅(2012). 문화, 제국, 민족-비판적 전유를 위한 에드워드 사이드의 『문화와 제국주의』 읽기. **영어영문학** 58(5). 한국영어영문학회. 903-941.
- 교육부(2022). **사회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2-33호 [별책7]).
- 구정화(2015). 사회·문화 교과서의 사회적 소수자 내용에 대한 분석. **다문화교육연구** 8(4). 한국다문화교육학회. 1-27.
- 구정화(2011). 초등 사회 교과서의 성평등 내용 단원과 다른 단원간 성평등 관점의 일관성 문제. **시민교육연구** 43(1). 한국사회과교육학회. 1-21.
- 기든스, 앤서니, 필립 서튼(2018). **현대 사회학**(제8판). 김미숙 외(옮김). 서울: 을유문화사. [Giddens, Anthony & Sutton, Philip W.(2017). *Sociology* (8th ed.). Cambridge: Polity.]
- 김보명(2018). 페미니즘의 재부상, 그 경로와 특징들. **경제와 사회** 118. 비판사회학회. 99-138.
- 김은석(2019). 초등학교 사회과교과서 역사영역의 젠더 프레임. **사회과교육연구** 26(1). 한국사회과교육학회. 31-39.
- 김은주(2019). 제 4물결로서 온라인-페미니즘: 동시대 페미니즘의 정치와 기술. **한국여성철학** 31. 한국여성철학회. 1-32.
- 김정환, 유종열(2020). 양성 평등의 관점에 기초한 고등학교 ‘사회·문화’ 교과서 사진 및 삽화 분석. **교육연구** 35(1). 공주대학교 교육연구소. 1-29.
- 김지혜(2019). **선량한 차별주의자**. 파주: 창비.
- 나장함, 조대훈(2017). 세계시민교육 유관기구 발간 교육자료에 나타난 세계 시민교육의 양상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17(24). 학습자중심교과서 안의 젠더: 페미니즘 관점에 따른 고등학교 사회·문화 교과서의 젠더 개념 분석 189

과교육학회. 907-933.

- 라일, 로빈(2014). **젠더란 무엇인가**. 조애리, 강문순, 김진옥, 박종성, 유정화, 윤교찬, 이해원, 최인환, 한애경(옮김). 서울: 한올아카데미. [Ryle, Robin.(2011). *Questioning Gender: A Sociological Exploration* (1st ed.). New York: Sage.]
- 박가나(2016). 사회과 교과서의 사회적 소수자 관련 내용 분석: 2009 개정 교육과정 중 중·고 교과서를 중심으로. **사회과교육** 55(2). 한국사회과교육연구학회. 71-91.
- 박선운, 박윤경(2021). 성 소수자 관련 이슈에 대한 청소년들의 생각: 다문화 시민 교육에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시민교육연구** 53(3). 한국사회과교육학회. 29-58.
- 설규주(2013). 교과서 속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스테레오타입 연구: 2009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사회 교과서를 중심으로. **다문화교육연구** 6(3). 한국다문화교육학회. 55-83.
- 손희정(2017). **페미니즘 리부트: 혐오의 시대를 뚫고 나온 목소리들**. 서울: 나무연필.
- 사이드, 에드워드(2011). **문화와 제국주의**. 김성곤, 정정보(옮김). 서울: 창. [Said, Edward W.(1993) *Culture and Imperialism*. New York: Vintage Books.]
- 신경희(2018). 성소수자 친화적 다문화 교사교육을 통한 예비교사의 인식 변화에 관한 연구. **열린교육연구** 26(2). 한국열린교육학회. 81-101.
- 유현옥(2004). **페미니즘 교육사상**. 서울: 학지사.
- 이미나(2017). 수도권 고교생들의 온정적 성차별주의와 기사도 정신: ‘의존 지향적 도움’과 ‘보호를 명분으로 한 제지’의 수용도를 중심으로. **시민교육연구** 49(4). 한국사회과교육학회. 117-147.
- 조대훈(2011). 동성애에 대한 교수적 태도의 영향 변인 연구: 다문화교육과 교사교육에 대한 시사점. **시민교육연구** 43(1). 한국사회과교육학회. 205-237.
- 조혜승(2019). 젠더 관점에서 본 세계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 교과서 분석을 중심으로. **국제이해교육연구** 14(1). 한국국제이해교육학회. 107-150.

- 최영아(2020). 온정적 성차별주의가 여고생의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효과. **사회교육연구** 27(4). 한국사회교육학회. 75-90.
- 최정윤(2006). 사회 교과서 집필자의 성차별적 태도가 교과서 내용의 성차별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10학년 “사회” 교과서를 중심으로. **시민교육연구** 38(2). 한국사회교육학회. 161-203.
- Cochrane, Kira(2013). *All the Rebel Women: The Rise of the Fourth Wave of Feminism*. London: Guardian Books.
- Chamberlain, Prudence(2017). *The Feminist Fourth Wave: Affective Temporality*. London: Palgrave Macmillan.
- Krippendorff, Klaus(2019). *Content Analysis: An Introduction to Its Methodology* (4th ed.). Washington DC: SAGE.
- Sabzalian, Leilani(2019). *Indigenous Children's Survivance in Public Schools*. New York: Routledge.
- Sabzalian, Leilani, Shear, Sarah B. and Snyder, Jimmy(2021). Standardizing Indigenous Erasure: A TribalCrit and QuantCrit Analysis of K - 12 U.S. Civics and Government Standards. *Theory & Research in Social Education*. 49(3). 321-359.

<자료>

- 연합뉴스**. 7년만에 바뀌는 교육과정...‘자유민주’ 넣고 ‘성소수자’ 빼고. 2022년 11월 9일자. <https://www.yna.co.kr/view/AKR20221109046000530>
- 중앙일보**. ‘자유민주주의’ 넣고 ‘성소수자’ 빼 교육과정 최종안, 국교위 상정. 2022년 11월 9일자.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23585#home>

Abstract

**Gender in Textbooks:  
Analyzing the Meaning of Gender Equality  
Manifested in High School ‘Society and Culture’  
Textbooks from the Feminist Theoretical Perspectives**

Jho, Daehoon

(Professor,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oncept of gender equality described in the high school social studies elective subject “Social and Culture” textbooks from the theoretical perspective of feminism. After reviewing the concept of gender equality and theoretical streams, the researcher developed a framework of content analysis for the textbooks and applied it to the analysis of the relevant textbook units. The major findings from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concept of gender in ‘Social and Culture’ textbooks took the perspective of liberal feminism combined with the partial elements of radical feminism. Second, ‘education of equality for two sexes (*yangseong pyeongdeung kyoyuk*)’ as the implicit principle was found across all five textbooks; stories of particular gender identities and experiences tended to be excluded by so-called ‘gender erasure,’ resulting in a distortion of the concept of gender. Third, the concept of gender equality in ‘Society and Culture’ textbooks was also

characterized by the exclusivity of nationalistic feminism; as a result, the learning about the boundaries and scalability of gender issues tended to be limited or overlooked. The major research findings of the study provide educational implications for the fields of the textbook research based on the 2022 revised curriculum, the research on gender education, and the research on school curriculum policies.

*Key words : Gender equality, Gender inequality, Feminism, Social minorities, Social studies textbook*

투고신청일: 2022. 11. 12

심사수정일: 2022. 12. 22

게재확정일: 2022. 12. 29